

공단, 범국민적 절전운동 선도

- 전임직원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쉼기대회' 개최 -

공단은 지난 19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동절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난방기 순차운휴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임직원 '에너지절약 실천 쉼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공단은 전임직원의 에너지절약 실천의지를 결의문낭독을 통해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공단은 연간 10% 절전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목표 아래 ▲동절기 피크시간대 난방 중단(10시~12시, 17시이후) ▲실내온도 18°C이하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복도, 화장실 조명기 1/2 소등 ▲친환경 소재인 LED 전등 교체 ▲시간대별 합리적 열리베이터 운행(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출퇴근 및 점심시간 외 20% 감축운행 등) ▲중식시간 일

팔소등, 퇴근시 PC멀티탭 전원차단, 퇴근후 60분마다 일괄소등 ▲전산실 항온 항습기 1대 가동 중지 및 온도 재설정 ▲승용차 5부제 철저 준수 ▲전직원 내복입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일 2회씩 에너지 절약 안내방송을 하고, 일별·월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번 에너지절약 쉼기대회는 전임직원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공단은 정부기준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범국민적 절전 운동을 선도하겠다"고 실천의지를 역설하였다.



절전실천 동참 결의대회

2011. 12. 19 [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춘선 목현역 경제설계로 20억원 예산절감

- 공단, 남양주시의 재정부담 덜어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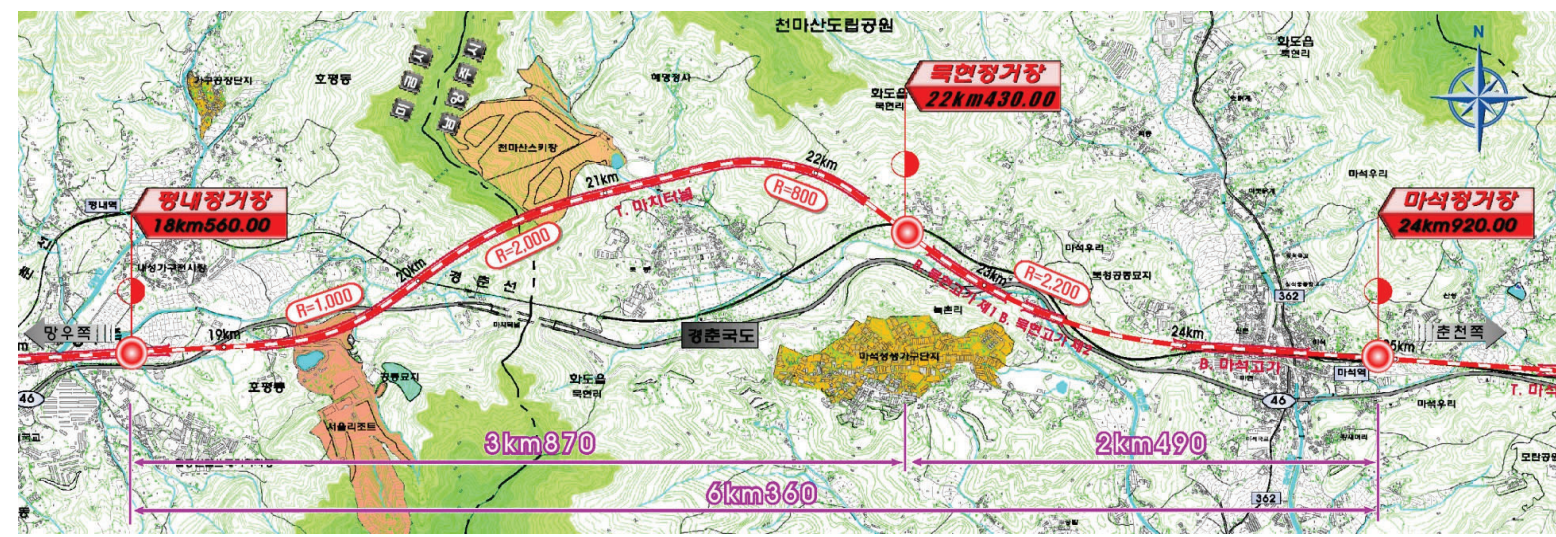
공단이 남양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경춘선 평내호평과 마석역 사이에 신설할 목현역사의 시설규모를 최적화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남양주시와 설계 초기부터 협의하여 후면역사를 없애고 주차장을 교통영향평가에 맞추어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등 과잉설계를 제거해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동선을 고려하여 콘코스(광장)에서 개·집포구를 통과한 후 곧바로 승강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방향으로 편중된 반대편 승강장은 연결통로를 최단 거리로 계획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철도 역사 설계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Barrier Free)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단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철도건설 시 운영을 고려한 계획,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승객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목현역처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공단 경영방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공단과 지자체가 공생발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목현역사는 '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하루 120회 이상 열차가 운행되고 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철도 건설 만성지연 개선된다

- 지자체 재정부담 및 주민 민원 등 사업지연요인 해소될 듯 -

공단은 광역철도사업의 시설규모 적정화 등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등 만성적인 지연요인을 해소하여 계획된 대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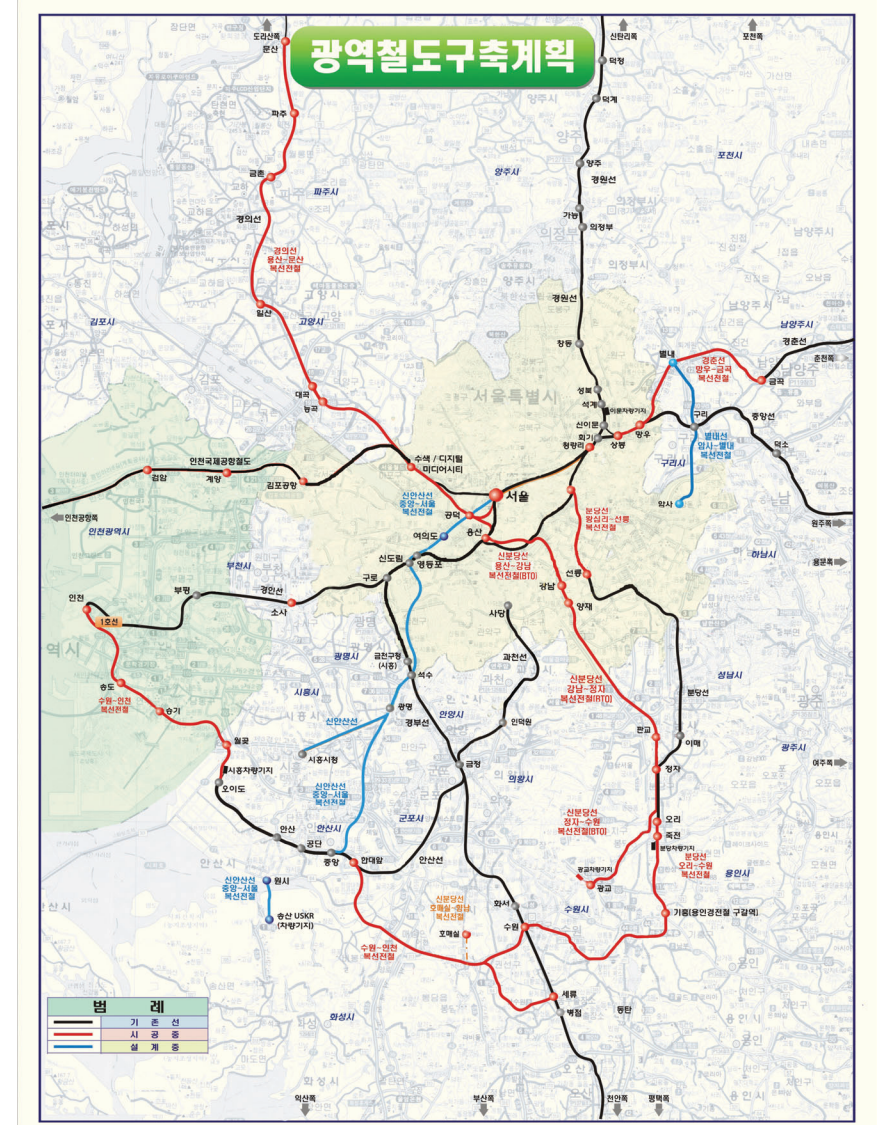
광역철도사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해 국가가 75%, 지자체가 25%의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분담금 미납 등으로 일부 사업들은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3년~17년 늦게 건설되어 왔으나, 공단은 그간 시설규모과다로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남양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건설중인 경춘선 목현역은 교통카드사용으로 인한 매표실·과다속직실 등 역무시설 대폭축소, 후면역사 폐지, 옥외주차장 축소 등으로 20억원을 절감하여 국고와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수인선은 불필요한 아복역, 사리역, 연수역의 대피선을 폐지하고 송도역 화물수요검토를 통해 화물취급시설을 조정하여 4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 중 전동차를 대피할 필요가 없는 좌천역 등 6개역에 부분선과 승강장 규모를 줄여 1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신안산선은 신형 전동차를 감안, 터널단면을 축소하고 수요를 재검토하여 6개 지하역의 승강장 폭을 축소하는 등 840여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광역민자철도처장은 "그간 과잉설계·시공 여부를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최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과도한 지하화 요구와 보상 민원에도 적극 대처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개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시판

금주의 주요뉴스 (12. 12 ~ 12. 17)

- 공공기관 채권 300兆...3년새 두 배(조선일보 12. 12)
- 경기 철도망, 2020년까지 1336km로 늘린다(한국일보 12. 12)
-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 침수(국민일보 12. 12)
- "양주 교외선 복선전철화"(경기일보 12. 12)
- 문경 불정역 옆 마구잡이 자전거길 공사(경북도민 12. 12)
- 38년만에 소양강댐 정상 길 개방(강원일보 12. 12)
- 원주~강릉 전철 노선 결정 서두를 일이다(강원일보 12. 12)
- 호남고속철 손실보상 재산권 침해 논란(전남매일 12. 12)
- 철도시설공단 노사 갈등 갈수록 태산(한국일보 12. 13)
- "경의선 전철 '야당역' 조기 개통해야"(조선일보 12. 13)
- "다양한 승객 수요 창출이 관건"(조선일보 12. 13)
- 시속 180km 청춘열차 내년 2월 개통(중앙일보 12. 13)
-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 마련(파이낸셜뉴스 12. 13)
- "연기군 철도시험선로 설치 반대"(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대전일보 12. 13)
-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노송·장안구형제 반영을(경인일보 12. 13)
- 철도시설공단 "노조 이기심 때문에 교섭 부진(한국일보 12. 14)
- 경춘선 준고속 개통 내년 2월로 연기(경향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12. 14)
- '공항철도 안전 소홀' 작업반장·기관사 등 영장(한국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12. 14)
-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파이낸셜뉴스 12. 14)
- 내년 공공기관 1만3352명...상징그룹보다 60% 더 뿔는다(한국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12. 14)
- "정부, 철도시험선로 설치 일방추진" 연기주민들 국토부에 반대의견서(금강일보 12. 14)
- 용산지구 철도검수시설 이전 순항(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중앙일보 12. 14)
- 베일벗은 ITX-청춘 운행계획 러시아워 때 좌석경쟁 불가피(조선일보 12. 15)
- 신분당선 동빙고~경북구역 연장 추진(파이낸셜 12. 15)
- 공공기관 '중하 청렴도' 낮아졌다(서울신문 12. 15)
-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이 19개 출연연구기관 통합(매일경제 12. 15)
- 창원 KTX개통 1년 창원역에는 그늘만(경남도민 12. 15)
- 익산 모현대학교 차량 부분 통제 호남고속철도 교량공사 실시(새전일보 12. 15)
- 군장산단 인입철도 속도낸다(전라일보 12. 15)
- 철도법 제정까지 임대주택 조성(중도일보 12. 15)
- 스위치백리스트 사업 원활(강원일보 12. 15)
- "경춘선 준고속열차 요금 인하하라"(강원도민일보 12. 15)
- "ITX-청춘 요금은 고속, 속도는 준고속"(동아일보 12. 16)
- 철기연, 녹색교통물류 시스템 연구소 열어(파이낸셜 12. 16)
- 양주 덕정역 주민 13년 보상민원 해소(중부일보 12. 16)
- 춘천~속초 고속철 '타당성' 발표 왜 미루나(강원일보 12. 16)
- 광주~순천 전철화 힘 모으자(무등일보 12. 16)
- KTX 공사도 모현대교 부분통제(전라일보 12. 16)

공단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적극 지원

- 실무협의체 구성, 본격 가동 -

공단은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동대구역, 부전역, 광주송정역 등 8개 역사부지를 활용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화) 대전 본사에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복합환승센터 개발·지원·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인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12월 KTX동대구역 등 8개소를 국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단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KTX역사와 연계한 철도중심의 복합환승센터가 개발기술 협력, 자료 공유 및 철도부지 사용·점용허가 등을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송정역 및 부전역 등의 경우 철도역사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계획으로, 2014년 이후 각각 개발이 완료되면 철도중심 연계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지역발전 견인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불어 국유철도재산을 활용한 국가적 수익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설장비사무소 제도지기 CoP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동상」 수상

기술본부 시설장비사무소(소장 유승우) 제도지기 CoP 부임조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형식 국무총리가 참석, 2011년 한 해 동안 품질경영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격려 축하하였다.

시설장비사무소 제도지기 부임조는 지난 6월 17일 CoP분야 'CoP 활동을 통한 녹색 철도 건설'을 주제로 예선전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8월 25일 본선에 진출하여 대통령상 '동상' 성적을 거두어 이날 대회에서 증서 및 메달을 전수받는 기쁨을 안았다.

그동안 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한 제도지기 CoP조원(7명)들의 노고에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CoP활동을 전개하여 지식습득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설장비사무소 유승노 기자)

